



# S.M. 3 OFFICES

MARIANISTI – AMMINISTRAZIONE GENERAL – Via Latina, 22 – 00179 Roma – Italia

# 154

January 2021

마리아회 모든 회원들과  
마리아회 모든 사도직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께



글로벌 교육협약  
우리 사명의 특권적인 수단을 쇄신할 기회

## 목 차

1. 서론
2. 다양한 구성 요소의 GPE
3. 이 꿈을 설명하는 두 개의 이미지
4. GPE는 오늘날 우리 마리아니스트의 교육적 상황에 빛을 밝히고 도전장을 던집니다.
5. 마리아니스트 “팔라버 나무”
6. 결론



### 1. 서론

교육은 마리아회 사도직의 특권적인 방법이다(생활규칙 74조 참조).

2020년 10월 15일에 교황 프란치스코는 글로벌 교육협약(Global Pact on Education, GPE)의 본선(main line, 本線)을 밝히시고 교육 세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우리에게도 소중한 주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의 재발명”을 요구하는 이 GPE는 교황 성하의 갑작스러운 생각이 아니라 성 베드로의 권좌에 앉으셨을 때 부터 그의 말씀과 가르침의 선상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적 권고 **복음의 기쁨**을 이야기하든지, 두 개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모든 형제들을** 이야기하든지 이 모든 것은 사회 변화의 도구로서의 교육의 쇄신된 전망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현재 이상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 시스템에 상처를 내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이상한 시대의 한 면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제기하시는 많은 걱정 중 하나의 예일뿐입니다. 이 팬데믹뿐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 사이, 사람들과 자연 사이, 그리고 논쟁의 중심에 있는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훼손된 조화의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희미한 안개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를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이 스스로 모든 답을 당장 내놓지 못할지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께서 우리 인류의 대안적 미래의 보장을 위하여 교육에 의지하려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학이 훌륭하다고 옳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기회로 이 GPE를 봐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는 마리아니스트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이 협약에서 동의하는 주장을 하려 합니다. 이 문서 안에서 대답하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기꺼이 열어두려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2. 다양한 구성 요소의 GPE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랫동안 주장해 왔고 2020년 10월 15일 공개했던 GPE는 그 자체로 추구하는 목표와 암시하는 약속, 그리고 따라가야 할 행동의 선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 요소를 식별해 보겠습니다.

## a) 글로벌교육협약(GPE)의 선행 사항

앞서 말했듯이, GPE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의 기쁨'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교회 전체가 선교적 "여행"을 시작하고, 개인과 사회 생활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도권을 취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초대했습니다. 이 초대는 사람들이 공동선과 평화의 직접적인 행위자가 되고 건설자가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우선적인 활동으로서 교육과 훈련이 그 기반이 됩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 생명, 사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틀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교육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교육적 노력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215항)임을 상기하며 다시 이러한 생각을 시작하십니다. 이 확신을 받아들이면 미래 세대의 발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교육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할 필요가 분명해집니다.

## b) 지향하는 목표

교황 성하께서는 2019년 9월 12일 행사를 발표하는 메시지에서 '글로벌교육협약(Global Compact on Education)의 재발명'을 말씀하시면서 "폭넓은 **교육 연합**에서 우리의 노력을 결집하고, 분열과 반목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개인을 양성하고, 보다 형제적인 인간애를 위해 관계의 구조를 회복할 필요가 예전에는 없었<sup>1)</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실행되어야 할 어떠한 교육적인 행동도 아니고, 개발되어야 할 프로그램도 아닌, 이루어져야 할 '협약', '연합'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협약"을 말하면 그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약속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황께서 우리의 교육 사업에 협력할 파트너를 찾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런 토대 위에서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다양성은 하나의 기회이기에 바람직한 것입니다. 교육의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데 있어 각 개인의 공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양성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방향 설정과 선악의 분별력에 관심을 갖고, 육체적 건강과 도덕적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이들, 젊은이와 그들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종교의 대표자들, 국제 기구와 다양한 인도주의 기관의 대표자들, 그리고 학문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대표자들까지 모든 이들이 이 협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함께 "교육 마을" 건설에 대한 공헌을 해야 합니다.

## c) 글로벌교육협약(GPE)의 약속들(commitments)

새로운 교육동맹<sup>educational alliance</sup>은 다음과 같이 7가지 학제간 약속<sup>2)</sup>을 중심으로 짜야 합니다. 이 일곱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심에 인간존엄성을 두기, 2.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경청, 3. 소녀들을 위한 교육의 보편화, 4. 가족의 중요성 인식, 5. 가장 약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수용과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6. 경제, 정치, 성장과 진보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방법 모색, 그리고 7. 공동의 집 보존. 이것이 협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시된 방법들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1) 바티칸 웹사이트([www.vatican.va](http://www.vatican.va)) 또는 우리 웹사이트([www.marianist.org](http://www.marianist.org)) 참조

2) 2020년 10월 5일 글로벌교육협약의 개시에서 교황의 연설: [www.vatican.va](http://www.vatican.va) 또는 [www.marianist.org](http://www.marianist.org) 참조

#### d) 행동의 세 줄기 라인

이 GPE 시작 이후에 우리는 이 협약이 현실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른 마리아니스트들과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행동의 세 줄기 라인의 윤곽이 드러났고, 세 개의 단어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 세 개의 단어는 집중, 환영, 그리고 참여입니다.

1) **집중**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가치, 존엄성, 특수성, 아름다움, 독특성을 말하며, 그리고 동시에 다른 이들과 관계 맺는 능력, 주변의 현실과 관계 맺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2)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환영에는 우리 서비스의 수혜자인 어린이와 청소년 각자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아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 자신과 모든 수준의 교육 주체는 또한 그들 자신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외침에 자신을 개방하기 위해서 다른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일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3) 행동의 마지막 라인은 핵심인데 이는 **참여**입니다. 경청은 수동적인 경청이나 강요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특수성과 책임감에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공헌할 수 있는 공간과 플랫폼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 3. 이 꿈을 설명하는 두 가지의 이미지

교황은 교육을 통해 세상이 더 인간적이 되는 꿈을 설명하기 위해 “교육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sup>3)</sup>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이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공동선을 위해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하는 특별한 장소인 “팔라버 나무”에 대해 언급을 하여 이 이미지에 색깔을 입히고 싶습니다.

#### a) “교육 마을”

교육이 모든 이들 사이에 평화를 창조하며 우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황은 “교육 마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다른 상황에서, 교황께서는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 연결된 우리의 모든 측면을 가리키는 머리, 손, 그리고 가슴을 함께 연결하는 교육적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 마을을 설명하십니다. “교육 마을”의 이 이미지는 전통적인 마을의 또 다른 보완적이고 매우 중요한 이미지인 “팔라버 나무”의 이미지를 가리킵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브라질과 세계의 다른 지역까지 여러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공통의 관심사의 문제를 풀기 위해 이런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이 제도는 어느 정도 우리의 “교육 마을”을 만들고 기능하게 하는 면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식별의 도구입니다.

#### b) “팔라버 나무”

‘팔라버 나무’는 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 마을 주민들이 나무 그늘에 함께 모여 마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놀기도 하고,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곳인데, 이는 가치관

3) 2019년 9월 12일 글로벌 교육 협약을 발표하는 교황의 연설. [www.vatican.va](http://www.vatican.va) 또는 [www.marianist.org](http://www.marianist.org) 참조

을 전달하는 장소입니다. 마을의 화합에 지장을 주는 문제나 갈등, 결정적인 요구가 있다면, 마을을 복원하는 것은 모두의 일이 됩니다. 일단 종이 울리면, 마을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이든, 특별히 오라는 초대 없이도 모두 모여서 모든 이가 같은 눈높이로 (이는 그들끼리 동등하다는 것을 나타냄) 동그랗게 둘러앉아 함께 합니다. 식별하는 동안, 생각의 흐름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은 말하자면 "최고의 해결책"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만 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반박하거나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의 말을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자유롭게 끼어들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모든 이들이 자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함에 이르는 그 합의입니다.

우리의 '교육 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또한 모두의 기여를 존중하고 고려하는 조연을 얻기 위해 이와 비슷한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4. GPE는 오늘날 우리 마리아니스트의 교육적 상황에 빛을 밝히고 도전장을 던집니다.**

글로벌 교육 협약의 관심사는 교육수도회인 우리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교육에 투신하는 이 두 세기 동안, 마리아회는 이미 여정의 중도에 있고 이 협약의 많은 약속을 염두에 둔 특정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의 "모범 사례"가 있기도 하며 약간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올바른 길 위에 있지만, 마리아회가 몇몇 지역에서는 얼마나 더 가야할지,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나 다르게 행동을 해야 할지를 몇몇의 간단한 사례가 충분히 설명해줄 것입니다.

##### **a) 마리아니스트 가족과 함께 일을 하고 우리의 동맹을 확장시키기**

2018년 세계총회의 대의원들은 “사도직에서 마리아니스트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심적 소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총회는 문자 그대로 “마리아니스트 수도자의 미래는 가족으로서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수도생활은 존재할 수 없다.”(3항)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소명은 GPE에 의해 확인이 되었는데 GPE는 교육서비스에 있어 폭넓은 동맹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는 심지어 우리를 마리아니스트 가족보다 더 멀리 나아가, 다양한 접근법과 도구, 생각, 발견의 공유를 통해 다른 참여자들의 다양성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가 조금밖에 식별하지 않은 것을 더 의식적으로 우리의 신념에 따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할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니스트 교육 기관으로서, 마리아회의 단위체로서, 그리고 수도회로서 우리는 우리의 교육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누구와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누구와 오늘날 우리의 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열린 동맹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청소년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모든 교육자들과도 해야겠지요. 하지만 이 바로 눈 앞의 범주를 넘어서 다양한 풀뿌리 기관들, 그리고 다양한 국제 기관들, 그리고 우리들의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요?

##### **b) 우리의 교육 헌신의 중심에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협약”의 개념은 사람을 가장 먼저, 그리고 맨 앞에 언급합니다. 교육 과정의 “중심에 사람을 둔다.”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마리아니스트의 어휘 안에, 그리고 “마리

아니스트 교육의 특징”, “마리아니스트 행정의 주요 특성”, 또는 “우리의 사도직 안에서 마리아니스트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같은 많은 우리의 문서들 안에서 아주 잘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도직에서 “JPIC”(정의 평화 환경)의 문제와 “가장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59c)에 우선권을 두라고 상기시킨 2018년 세계 총회의 안건들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자에 대한 수용과 개방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우리 공동의 집 보존”이라는 문서들, 그리고 GPE의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의 약속 등에서 강조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어린이와 청소년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녀들과 젊은 여성, 그리고 가족에 초점을 맞춘 2번, 3번, 그리고 4번 약속의 넓은 영역에는 아직 좀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 1) **일반 청소년에 대하여.** 우리의 마리아니스트 사도직에서 우리는 매년 수천 명의 젊은이들과 접촉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가 우리와 함께 몇 년을 보내고 우리의 교육적, 사목적 스타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떠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청소년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사건에 대한 의미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청소년에 관한 세계주교대의원회와 함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사건에 의미를 찾는 방법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미 그들과 접촉하고 있는 많은 수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난 적이 없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의 청소년들은 우리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선형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부자”이고 그래서 우리의 가난한 이를 향한 프로젝트들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너무 “가난”하기에 너무 비싼 우리의 교육 조직에 접근할 수단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더 많은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 2)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에 대하여.** GPE의 세 번째 약속은 그들이 교육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팔라버 나무”아래에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주제가 아닌가요? 전 세계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이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소녀들은 항상 뒤쳐질 수 있어 심각한 걱정거리입니다! 마리아니스트로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나요?
- 3) **우리 학생들의 가족에 대하여.** 학교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의 하나는 우리 교육 프로젝트에 가족들과 지역 사회 공동체의 더 큰 참여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들의 첫 번째 교육자로서의 그들의 역할 안에서 생애의 이 초기 단계의 중요성을 새로운 국제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몇 학교에서 “부모 학교”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는 뒷받침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이 GPE의 약속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마을”의 공통적인 길에 첫 발걸음은 창의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최상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용기가 뒤따라야 하며 우리 교육공동체에 유용한 사람들(수도자와 평신도)을 잘 양성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세대와 함께 GPE의 여섯 번째 약속의 실행을 향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여섯 번째의 약속은 “경제, 정치, 성장과 진보를 이해하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는 “재발명” 되어야 할 새로운 교육적 “협약”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가정을 존중하며 평화와 보편적 형제애의 가치를 위한 서비스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여성과 남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 c) 우리 교육적 선교적 스타일의 수정

우리의 교육적 선교적 스타일이 부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의 교육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재창조하라는 초대 는 우리가 무관심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기회입니다. 예언자적 방법으로, 2018년 세계 총회는 이미 “총회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실질적 필요와 마리아니스트 가족, 그리고 교회의 요구에 비추어 보고, 이러한 요구들에 잘 응대할 수 있도록 단위체의 평의회들이 그들의 현행 선교 사명 계획(missionary plans)을 개정하도록 요청”(54항)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단위체가 아직 이 업데이트의 과정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개정하는 기회와 격려로 교황 성하의 초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 공간이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내고 알려줄 능 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과의 랑데뷰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2021년, 마리아니스트 교육의 특성(Characteristics of Marianist Education, CME) 발간 25주년을 맞아 여러 지 역에서 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 맞는 우리의 교육적 스타일을 “재발명”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교육 협약을 재발명”한다는 생각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최근 팬데믹 기간 동안 마리아니스트 교육의 다섯 번째의 특성인 “적응과 변화를 위한 교육”이 현재의 다양한 도전에 맞게 창의적으로 응답하는 본보기적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행동을 하도록 재촉하는 상황 에 대응하고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새 로운 협약은, 잘 이해했다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심지어 이런 특성의 정신을 넘어서 가라고 요구하고 있습 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단지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신속한 교육적 대응이 요구할 때에 전산화된 플랫폼을 사용해야 했지만 이 해결책은 일부 지역에서 효과적이긴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교육적, 기술적 기회의 큰 격차와 “교육적 대참사”를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는 2억5천만 명 이상의 학령기 아동들도 받을 자격이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 이 외부 요인의 압박에만 “대응”해야 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을 목표대로 예측하고 계획함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인 답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 5. 마리아니스트 “팔라버 나무”

### a) “팔라버 나무”는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기관(機關)입니다.

동맹의 생각이 같은 목적을 향해 협력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또한 이러한 기여들 을 한데 모으고 우리가 해야 하는 공동 작업의 규정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틀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 마을'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노력과 도구, 자원과 수단을 한데 모으는 데 도움을 주 는 플랫폼의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팔라버 나무'의 이미지는 '교육 마을'의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지 며, 우리의 대의를 위해 획득한 모든 선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정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모든 수준에서 반 드시 찾아야 하는 플랫폼들을 고무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래에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의성으로 부르는 GPE의 도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적용 수 있고, 우리와 동맹을 맺자고 초대된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마리아니스트적 모델 을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 b) 마리아니스트 네트워크 설립

마리아니스트 '설립 네트워크'의 존재는 지평을 넓히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의 기본입니다. 비록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출발점과 자원,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성취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SM 단위체와 우리의 교육 기관들이 가능한 한,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이러한 종류의 동맹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각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육자, 동문들과 함께 그러한 동맹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리아회는 전체적으로 100여 개의 정규 학교와 112,000명의 학생들과 8,000명의 교육자들이 수도자와 평신도들을 포함하여 두 번째 단계의 동맹을 엮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교회와 보편교회 차원에서 이 동맹이 더욱 확대됩니다. 우리 학교가 있는 동네에서는 그 동네에 있는 가정과 무제한적이고 알찬 동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의 수준과 동맹의 수준을 높이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지역 네트워크 통합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다른 수도회 그리고 공공기관 함께 작업하는 것은 어떨까요? "교육 마을"이 존재하고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수준이 존재해야 합니다. 글로벌 교육협약(GPE)이 출범한 이후, 꽤 잘 작동한 레벨은 USG-UISG<sup>4)</sup>입니다. 이것은 다른 수도회와 다른 수도 단체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수준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 c) 마리아니스트 교육학을 실행하는 학교

'교육의 재발명'의 현 상황에서, 마리아회가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당시 그토록 중시했던 '사범학교'의 전통을 어떤 형태로든 부활시키는 것을 마리아회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샬미나드 신부는 사범학교(normal schools)을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히 영감을 받은 일"로 여겼습니다. 사범학교가 샬미나드 신부가 "배가 자를 배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소가 있는 단위체(지구나 관구)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임회하는 수도자가 생각하고 있는 전문적 양성이란 것은 마리아니스트 교육학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공공기관에서 받은 학문적 교육일 뿐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필요는 충족되어야 하는데, 마리아니스트 교육을 하는 (마리아니스트) 학교가 우리 수도자의 수가 감소하는 우리 학교에서 함께 하는 많은 평신도 동료들 양성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는 사실 외에도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우려는 대륙별 마리아니스트 연구센터가 개발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6. 결론

교육에 관한 국제 협약의 방향을 인지한다는 것은, 이 협약의 초대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매일 일하는 목표와 같은 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 마리아니스트의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을 짓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가꾸고 있는 정원이 지구 전체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정원은 너무 작습니다. 만약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지붕이 하늘에 닿지 않는다면 지붕은 충분히 높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Léopold Bruni가 썼던 것처럼 우리의 교육 정원은 아직 지구 전체와 일치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 마을"의 집 지붕이 아직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

4) Unions of Superiors General & International Union of Superiors General (총장 연합과 국제 총장 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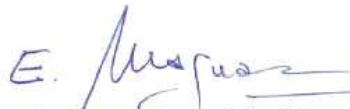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의 명예에 안주할 때가 아니군요! 우리 시대와 사도직 현장의 도전을 배경으로 개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고히 해야 합니다. "교육의 재발명"은 교육 과정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를 참여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작업입니다. 교육기관으로서, 그리고 수도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교육, 즉 "사도직의 특권적 방법"을 새롭게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홈페이지, [www.marianist.org](http://www.marianist.org) (Global Compact on Education 항목)에서 글로벌 교육협약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당신 자신의 창의력에 불꽃을 피울만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황님께서 전하신 모든 메시지, GPE의 발표와 시작일에 발표한 것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PE가 최근에 보여준 기회에 대해 교육계의 여러 전문가와 명사들의 여러 의견과 증언을 모은 OIEC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atholic Education, 가톨릭 교육의 국제 기구)가 펴낸 다국어로 된 책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9쪽에서는 우리 총장께서 하신 이야기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또한 전 세계의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의 많은 예를 제시합니다. 마리아니스트 프로젝트의 예는 3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매월 발간되는 Via Latina 22를 통하여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현재 성과물, 또는 점진적인 창작물을 교육 협약의 요청에 따라 공유합니다. 따라서 본 교육에 관한 국제 협약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과 이니셔티브를 [gensecsm@smcuria.it](mailto:gensecsm@smcuria.it)로 보내서 저희와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되신 창립자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모든 기관에 우리 창립자 축일을 축하드리며 우리 모두가 그분의 천상 탄일 171주년을 맞이하여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저의 형제적 안부를 전합니다.

Essodomna Maximin Magnost, SM



Assistant General for Education

복자 샬미나드 신부의 171주기 기념일,  
2021년 1월 22일 로마에서